

【서지사항】

【서류명】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 심판사건답변

【제출인】

【명칭】 주식회사 올찬드림

【출원인코드】 1-2020-061014-5

【사건과의 관계】 청구인

【대리인】

【성명】 허정훈

【대리인코드】 9-2017-001227-3

【포괄위임등록번호】 2020-060074-8

【사건의 표시】

【심판번호】 2020-당-003114

【답변내용】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별지와 같음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허정훈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증거자료[증거자료갑-제002호증]_1통 2. 증거자료[증거자료갑-제003호증]_1통 3. 증거자료[증거자료갑-제004호증]_1통


【별지내역】

【답변내용】

피청구인의 2021.04.01 일자 답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다 음 -

1. 피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1) 울찬농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 중 피청구인 김상봉이 등록권리자인 상표에 대해서 울찬농산이 피청구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명함에 등록상표의 일부구성에 해당하는  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의 불성립

(1) 제출증거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함

피청구인은 상표의 사용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을제1호증 또는 통신판매업신고증에 관한 을제2호증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측의 증거 을제3호증 및 을제4호증의 경우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하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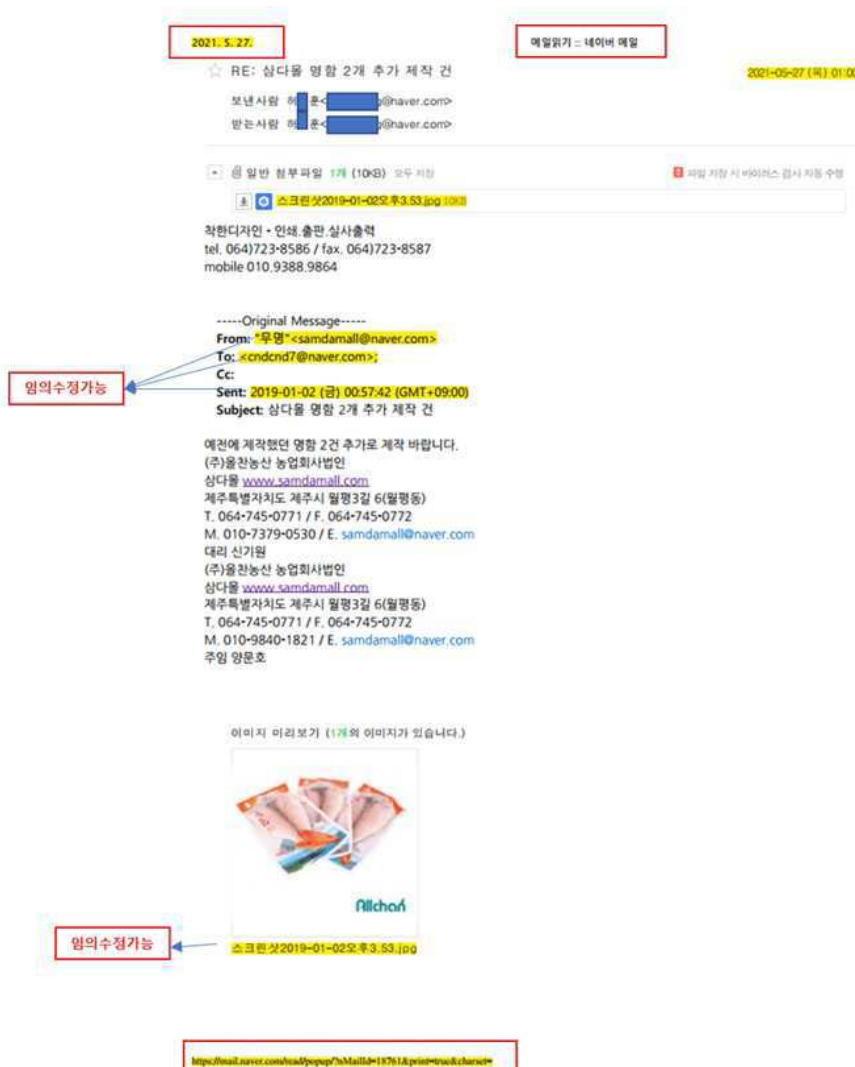
가. 을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합니다

- 문서의 내용의 임의편집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아래 발췌하여 편집된 갑제2호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제2호증은 임의로 작성된 이메일문서로써, 출력시 최상단 및 최하단의 붉은테두리 표시부분이 함께 출력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출력한 날짜, '메일읽기::네이버 메일', 링크표시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에 반하여, 을제4호증의 경우 최상단에 출력한 날짜, 최하단에 위치한 링크표시는 제외하지 않고 출력되어 있는 점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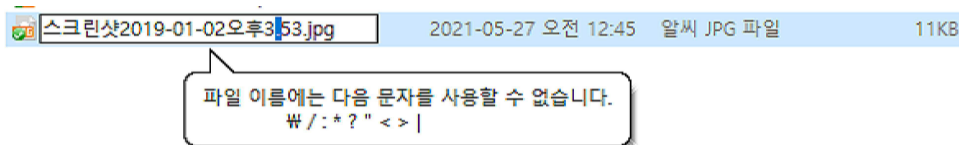
또한, 화살표 표시부분의 경우 네이버 메일을 회신하는 편집창에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보낸사람(from), 받는사람(to), 보낸시간(sent)의 임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갑제2호증 발췌편집>

- 제출된 문서의 내용은 논리적 오류를 내포함 (파일명칭/파일작성시점)

또한, 이미지 미리보기의 하단에 표시된 이름은 첨부된 파일의 이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의로 수정하여 업로드 할 수 있는 부분이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파일탐색기의 경우 시간과 분을 나누어 표시하기 위한 콜론(: 표시) 기호를 문서의 이름에 포함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이미지1: 파일편집기에서의 오류메시지>

이미지 미리보기 (1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크린샷 2019-01-02 오후 3.53...

을 제3호증

<참고이미지2: 을제3호증 일부 발췌>

상기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3호증의 경우 피심판 청구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상표사용시점에 관련한 주요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의 기재부분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거나 변형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되므로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을제3호증의 경우 최초 명함제작을 의뢰한 시점은 2019년 1월 2일 오전 9시 59분 04초로 기록되어 있으나, 상기 '참고이미지2'에 의하면 이미지를 캡처한 시간이 '스크린샷 2019-01-02 오후 3.53...'으로 표시된 점을 고려할 때 메일을 발송한 시점보다 나중에 획득한 이미지인 것이 됩니다. 즉, 이미지의 캡취한 시점이 메일을 보낸 시간보다 앞선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오히려 이미지를 캡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메일을 보낸 시간보다 이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메일수신인과 메일발신인의 소속이 불분명함

을제3호증을 참고하면, 최초 메일의 발송인 주소는

“samdamall"samdamall@naver.com” 이고, 수신인 주소는 “


이충화"cn dcnd7@naver.com" 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신인의 주소를 참조하면 '올찬' 또는 'Allchan'과 관련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신인 '이충화' 또는 'cn dcnd7' 역시 명함의 제작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착한디자인과 관련한 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 을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합니다.


피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삼다물'의 인터넷페이지를 일부 출력하여 을제4호증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을제4호증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출력된 문서임을 최상단의 출력일자 '2021. 3. 30.'의 표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의 표시를 삼다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을제4호증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 기록된 표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일자인 2020.10.15일을 기준으로 피청구인

이 운영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삼다몰(www.samdamall.com) 내에서  , 또는 '울찬'과 같은 단어 또는 상표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갑제3호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심판청구인은 삼다몰에서 제공하는 '제품명/키워드' 검색기능을 사용하여 '울찬'을 검색한 경우 검색된 결과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갑제3호증).

검색오류 여부를 검증하고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수령일 이후인 2021.4.28자로 삼다몰에서 제공하는 '제품명/키워드' 검색기능을 사용하여 동일한 키워드 '울찬'을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제4호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상품이 검색되었으며 상품이미지에  이 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제4호증).

상기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4호증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의 사용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의 상표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써의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소 결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제3호증 및 을제4호증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제3호증 또는 을제4호증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표 사용과 관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결 론

피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등록상표권자로서의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의 취지와 같이 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방법】

갑제2호증 네이버메일임의수정자료

갑제3호증 20201015_검색어[올찬]

갑제4호증 20210428_검색어[올찬]